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좀 길지만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1 Conoció Adán a su mujer Eva, la cual concibió y dio a luz a Caín, y dijo: Por voluntad de Jehová he adquirido[a] varón.

2.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2 Después dio a luz a su hermano Abel. Y Abel fue pastor de ovejas, y Caín fue labrador de la tierra.

3.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3 Y aconteció andando el tiempo, que Caín trajo del fruto de la tierra una ofrenda a Jehová.

4.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4 Y Abel trajo también de los primogénitos de sus ovejas, de lo más gordo de ellas. Y miró Jehová con agrado a Abel y a su ofrenda;

5.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5 pero no miró con agrado a Caín y a la ofrenda suya. Y se ensañó Caín en gran manera, y decayó su semblante.

6.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6 Entonces Jehová dijo a Caín: ¿Por qué te has ensañado, y por qué ha decaído tu semblante?

7.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 Si bien hicieres, ¿no serás enaltecido? y si no hicieres bien, el pecado está a la puerta; con todo esto, a ti será su deseo, y tú te enseñorearás de él.[b]

8.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8 Y dijo Caín a su hermano Abel: Salgamos al campo. Y aconteció que estando ellos en el campo, Caín se levantó contra su hermano Abel, y lo mató.

9.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9 Y Jehová dijo a Caín: ¿Dónde está Abel tu hermano? Y él respondió: No sé. ¿Soy yo acaso guarda de mi hermano?

10.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0 Y él le dijo: ¿Qué has hecho? La voz de la sangre de tu hermano clama a mí desde la tierra.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보면 이제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은요

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1 Conoció Adán a su mujer Eva, la cual concibió y dio a luz a Caín, y dijo: Por voluntad de Jehová he adquirido[a] varón.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은 그 아이를 낳았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

이 앞에보면 여호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을 어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지키지 못하고 어깁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땅을 차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하셨고

지금 그런 그 모든 일들이 이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어요 특히 하와에게 어떤 저주를 내렸습니까?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가질 것이다. 해산하는 수고를 가질 것이다. 그 말대로 하나님은 하와를 통해서

생명을 이어주신 것이에요 아마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고 얘기 했던 것입니다.

그 두아들이 하나는 농사 하는 자고 하나는 양을 치는 자잖아요 거기서 아벨이 양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읽을 때 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양을 친다. 양만 쳤을까? 다른 짐승은 안했을까?

그런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거기에 양이라고 표현된 말은 모든 동물을 가르킨다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 아벨은 짐승을 치는 사람이었고 농사하는 자다 라는 말은 땅을 다스리는 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아들이 나왔는데 세월이 지난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세월이 지난후에 이 뜻은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가 더해져서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원어성경의 말을 가지고 직역을 해보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일이 있었다. 끝날이라는 말입니다. 끝말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월이 지난 이후에라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세월이 지난 어느 시점을 얘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어느정도 성장했을 때 그들의 믿음을 그들을 평가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평가를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자기의 수고를 따라 힘써 일하고 그 얻은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될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설 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설명하기로 하고

그런 시기가 우리 각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것을 받을 수 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벨은 믿음의 제물을 드렸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제물을 드렸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열납하십니다. 기쁘게 받아드리시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예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거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때를 대비해서 믿음의 제물을

준비를 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Porque es necesario que todos nosotros comparezcamos ante el tribunal de Cristo, para que cada uno reciba según lo que haya hecho mientras estaba en el cuerpo, sea bueno o sea malo.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Porque es necesario que todos nosotros comparezcamos ante el tribunal de Cristo, para que cada uno reciba según lo que haya hecho mientras estaba en el cuerpo, sea bueno o sea malo.

그리스도의 심판대 시상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시상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몇 등이나 할 것인가

나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쪽에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 할 때 주님앞에 그 서는 날을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앞에 나아갔을 때 결국 남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 일만 남는다는 거에요

내 어떤 육신과 정욕을 쫓아 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1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5 No améis al mundo, ni las cosas que están en el mundo. Si alguno ama al mundo, el amor del Padre no está en él.

16.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6 Porque todo lo que hay en el mundo, los deseos de la carne, los deseos de los ojos, y la vanagloria de la vida, no proviene del Padre, sino del mundo.

17.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 Y el mundo pasa, y sus deseos; pero el que hace la voluntad de Dios permanece para siempre.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있다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삶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거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 Con Cristo estoy juntamente crucificado, y ya no vivo yo, mas vive Cristo en mí; y lo que ahora vivo en la carne, lo vivo en la fe del Hijo de Dios, el cual me amó y se entregó a sí mismo por mí.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만 주님앞에 남고 주님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인가에 보면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 앞에 서면 공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다 불타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개인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주님을 맞이해서 살아생전에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앞에 설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언제이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그런 준비를 해야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가인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열납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열납하셨을까요?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은 히브리서를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Por la fe Abel ofreció a Dios más excelente sacrificio que Caín, por lo cual alcanzó testimonio de que era justo, dando Dios testimonio de sus ofrendas; y muerto, aún habla

por ella.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4장하고 몇군데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요한일서 3장 12절 그다음에 마태복음

한 4군데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상고해보면은

이 아벨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가인에 대해서도 조금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열납하셨느냐?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에요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 제물에는 아벨의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 합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피를 흘려야지만 죄가 용서된다라는 그런 믿음이였습니다.

그래서 피흘림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 피흘림의 제사가 바로 더 나은 제사였다는 겁니다.

속죄를 얻기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동반한 그런 제사를 드려야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양의 첫 새끼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이 드려진

그 예물과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 형제지간에 아벨은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는데

왜 그 형 가인은 믿음없이 드렸을까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죠? 들음에서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진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을 통해서 전해질 수 받게 없는거에요

이렇게 성경으로 되어있다면은 우리는 그거 없이도 성경을 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

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때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을 전해줄 사람이 아담과 하와 두사람 받게 없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생기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잘 듣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잘 듣고 그 내용을 깨달아야 되요

우리 아이들이 그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연령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부모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지만 형은 그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벨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고 그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제물을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것이에요 믿음을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흘리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아벨과 그 아벨이 드린 제물을 열납하셨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보면은요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Por la fe Abel ofreció a Dios más excelente sacrificio que Caín, por lo cual alcanzó testimonio de que era justo

의로운 자라하는 그 증거를 얻었다.

그 말을 정확하게 쉽게 표현해보면은 더 나은 제사로 말미암아 그는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피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심으로 아벨은 의로운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보여주셨을까요? 둘이 똑같이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는 그 피제사를 가지고 나갔고 하나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는데 어떻게 증거를 얻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제물을 나를 받으셨다. 나를 받으셨다는 것은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증거하셨을까? 여기는 증거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창세기 4장에는 열납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증거라는 더 구체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보면은요 4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Por la fe Abel ofreció a Dios más excelente sacrificio que Caín, por lo cual alcanzó testimonio de que era justo, dando Dios testimonio de sus ofrendas; y muerto, aún habla por ella.

예물에 대하여 라는 말이 있죠 예물에 대하여 대하여라는 말이 전치사인데 그것이 위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물에 대해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는데 위에서 증거를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그말은 불을 내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학자들도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예를 몇차례 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위에서 불을 내려서 살러버렸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만나서 그들을 대접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그릇과 양푼을 쏟았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핥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위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마 불을 내려서 그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다.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23장 35절입니다.

35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para que venga sobre vosotros toda la sangre justa que se ha derramado sobre la tierra, desde la sangre de Abel el justo hasta la sangre de Zacarías hijo de Berequías, a quien matasteis entre el templo y el altar.

여기보면 의인이라고 얘기했고 그 의인이 피를 흘리고 죽었던 그 피를 의로운 피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얘기에요 아벨을 받으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Por la fe Abel ofreció a Dios más excelente sacrificio que Caín, por lo cual alcanzó testimonio de que era justo, dando Dios testimonio de sus ofrendas; y muerto, aún habla por ella.

저가 죽었으나 그렇습니다. 아벨은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하지만

아벨의 그 육체의 생명은 죽었지만 오늘날까지 아벨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해주신다는 거에요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믿음은 이 말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육체의 생명은 죽을 수 있지만 생명은 언젠가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아벨의 믿음은 죽지 않았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하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앞에 갈 때 까지 그 믿음은 영원한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성경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은 죽었어도 그의 믿음은 믿음의 의는 죽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는 성공했지만

그의 믿음까지는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벨은 믿음을 통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형조차도 가르칠수 없었던 그 아벨이 죽은 이후에는 자신의 믿음과 모범을 인해

온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믿음받게 없다라는거 그리고 그 믿음은 영원하다라는거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뭘까요

아벨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우리 인류가운데서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받고 그 것 때문에

형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한 최초의 순교자에요 그러면 그 아벨 이후에 이 땅에는 순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수히 많은 순교자가 있다는 거에요 7천 5백만의 순교자가 있다는 거에요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거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 아벨은 굉장히 큰 위안이 된다라는 거에요 최초로 하나님앞에 의롭다하심을 받았던 그 아벨이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형에게 죽임을 당한거에요 세상에 그런 비참한 죽음이 어디있어요

이걸 보면서 많은 순교자들이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후세에 참으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본이되고 그리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가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벨을 생각하면서 그 아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아벨은 그렇게 까지 고난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는데

내가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수 있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힘이 들 때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고난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것을 극복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비록 그 죽임을 당했지만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벨의 죽음은 이런 똑같은 죽음을 받은 여러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아벨의 죽임은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의 모형입니다. 자기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아벨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하심을 얻은 그런 사람 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거에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벨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까닭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죽였을까?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미움이 컷으면 그랬을까요? 이 아벨은 가인은 그 때까지 시간이 참 많이 지났을 것 아닙니까?

그 때까지 착하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그때 한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런일을 저질렀을까?

과연 그 아벨과 가인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요 이 아벨이 또 이 가인이 어떻게 살았고 가인이 왜 죽였는가 그런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에 보면은요 거기 나옵니다. 3장 12절을 읽기전에 9절부터 아...9절부터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8.Por la fe Abraham, siendo llamado, obedeció para salir al lugar que había de recibir como herencia; y salió sin saber a dónde iba.

9.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9 Por la fe habitó como extranjero en la tierra prometida como en tierra ajena, morando en tiendas con Isaac y Jacob, coherederos de la misma promesa;

10.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0 porque esperaba la ciudad que tiene fundamentos, cuyo arquitecto y constructor es Dios.

11.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1 Por la fe también la misma Sara, siendo estéril, recibió fuerza para concebir; y dio a luz aun fuera del tiempo de la edad, porque creyó que era fiel quien lo había prometido.

12.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2 Por lo cual también, de uno, y ése ya casi muerto, salieron como las estrellas del cielo en multitud, y como la arena innumerable que está a la orilla del mar.

그래서 보면은 가인같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앞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그런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사람은 어떤사람이냐면은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인은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하나님께로 난자도 아니고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형제사랑에 대한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에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에요 누구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읽는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무슨 이야기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라는 거에요 가인의 후예라는 거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도

아니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

용이라는거에요

뭐 맛있는거 있으면 같이 나눠먹고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옛날과 다르게 어디 수련회 같은데 가면 매점에서 뭐

사먹잖아요 옛날에는 서로 사주고 같이 나눠먹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요 그거 잘 안해요 없는에들은 그냥 처다보는거에요 침흘리고 그리고 안줘

우리 선생님들도요 서로 사랑하고 위하면서 그렇게 봉사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어려운일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고 그 형제에게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볼 때 하나님께로 난자라고

얘기 할 수 있는거에요 그런데 가인은 전혀 그런게 없었다는거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가인은 죽인겁니다. 하나받게 없는 동생을 그래서 거기보면 가인같이 하지말라 저는 악한자에게 속했다

악한자는 누굽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자 거짓의 아비인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잠깐 본문 보십시오

요한1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12.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2 Por lo cual también, de uno, y ése ya casi muerto, salieron como las estrellas del cielo en multitud, y como la arena innumerable que está a la orilla del mar.

악한자에게 그게 그 전치사인데 악한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영역과 영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악한자에게 라는 말은 그 악한자에 영역안에 있고 그 악한자에 영향력을 받고있다는거에요

누가? 가인이 그랬다는거에요 가인은 악한자에게 속해있었고 그리고 그 악한자에 영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어떤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까지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 사단의 영향력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단의 종이 되고 맙니다.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 사단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악한일을 행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구요

사단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또 거기에 해당이 되는겁니다. 나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는 결코 안되겠다라는 얘깁니다.

여기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12절 보십쇼 12절

12.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2 Por lo cual también, de uno, y ése ya casi muerto, salieron como las estrellas del cielo en multitud, y como la arena innumerable que está a la orilla del mar.

속했다 이 말은 이 그 시제가 참고문헌을 찾아보면은요 미 완료 과거 시제에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거에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 지금이 언제입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하나님앞에 예물을 드릴 그 때까지

이 실은 가인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는 얘기에요

12절 다시 보세요

12.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2 Por lo cual también, de uno, y ése ya casi muerto, salieron como las estrellas del cielo en multitud, y como la arena innumerable que está a la orilla del mar.

이 악하다 이 말은 그 시점에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가인은 악한 생활을 해왔다는거에요 지금까지

그다음에요 그 아우의 행위는 위로움이라 반대로 이 아우 아벨은 그 시점까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그것이 들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았던 아벨은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했고 반대로 가인은 거기서 제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가인이 자기 악한 모습이 드러나버리고

폭발해버린거에요 그로말미암아 아벨은 더 의롭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가인은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었어요 그 살인 사건을 말미암아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의롭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고 악한일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 버린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랍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열랍하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히브리서 11장의 내용과 이 요한 1서 3장 12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런 뜻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사의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 지혜가 부족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될지 참으로 고민하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장차 교회의 큰 일꾼과 같은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항상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나가고 그 맡은 직분에 늘 충성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